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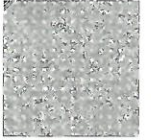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41호 2023년 4월 2일(가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순교자 | 이남규 투카, 290x234cm, 달도베르 스테인드글라스, 1985 절두산 순교성지

입당송 | 요한 12,1.12-13; 시편 24(23),9-10

제1독서 | 이사 50,4-7

화답송 | 시편 22(21),8-9.17-18 1.19-20.23-24(◎ 2가)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쭈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내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

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과, 주님께 영광 드러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과,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 마태 26,14-27.66<또는 27,11-54>

영성체송 |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손희승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학교구 총대리

파스카 신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 수난 성지 주일과 함께 성(聖)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정점인 이 기간에 교회는 성삼일 전례를 통해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장엄하게 거행합니다. '파스카'는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지나서' 부활에 이르신 사건을 파스카 신비라고 합니다. 파스카 신비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사랑의 신비가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시는 분'(마태 5,45)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포하신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품어주십니다. 율법에 따라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도 선뜻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이 따뜻한 자비로써 죄인의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예수님의 기적에는 열광하였지만, 회개의 요구에는 미지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무시한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결집하였고, 이들은 예수님께 수난과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안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쓴 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제1독서의 말씀처럼 어떤 저항이나 원망도 없이 묵묵히 모든 모욕과 매질을 받아들이십니다. 마치 '너희들의 그 못된 증오와 폭력은 내게서 끝내도록 하라.'는 뜻이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는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십니다.(루카 23,34) 예수님은 당신 백성이 거부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 죄인까지도 품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제2독서), 하느님 사랑의 심연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해 전례를 통해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너감'에 함께하기 위해, 곧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피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려는 이들, 반대로 세상의 고통만 확대해서 보고 부활을 희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며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마태 26,22)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받아들여 주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들이 사랑으로 결속하리라는 기대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보다 초라하고 무력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달드베르 기법으로 만들어진 스테인드글라스는 순교의 흔적과 형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빛이 통과하여 영롱한 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며 우리에게 사랑과 화해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말씀의
이삭

삶의 고비마다 나를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손길



고영초 가시미로
요셉의원 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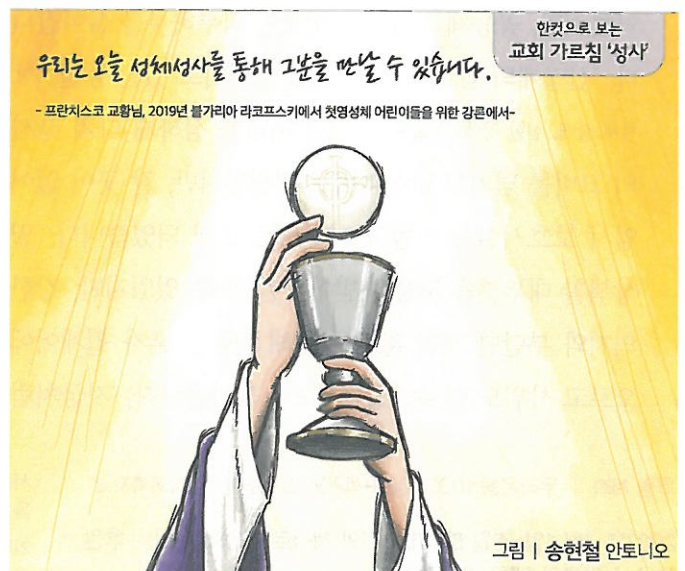
저는 1985년 5월 한림의대 교수를 시작으로 인제의대를 거쳐 건대병원까지 이어온 38년간의 교수직을 마감했습니다. 암 환자들의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봉사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차에 퇴임을 6개월 앞두고 설립 초부터 봉사해왔던 요셉의원에서 병원장으로 와달라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며칠 응답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감실 앞에서 묵상 중에 '내가 너를 의사의 길로 불렀으니 하느님 사업에 전적으로 봉사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원장 신부님께 '예.'라고 응답했고, 건대병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 2월 말에 퇴임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홍남철수 작전' 때 거제도에서 피난살이를 시작한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였던 친절한 이웃 아주머님의 영향으로 신자가 되셨고, 저를 낳자마자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청량리성당에서 복사를 시작했는데, 삼 형제가 모두 복사를 서면서 본당 신부님께 '아들 하나는 하느님께 바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던 부모님께서 저를 꼭 사제로 바치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저는 하룻길에 시위에 휩쓸리며 하룻밤, 외박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청량리였지만 데모대를 따라다니며 구경하느라 용산 삼각지에서 계엄 사이렌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울고 있던 저를 자기 하숙집에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다음 날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이를 천사의 도움이라 여기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는 1965년 성신중학교(소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잠이 덜 깬 채 아침기도와 미사를 바치는 것이 힘들었지만 1970년 3월 신일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저조한 예비고사 합격률은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고2 겨울방학 때 편입 시험에 응시해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과목이 어려웠지만 특히 수학 2가 어려웠습니다. 독일어는 소신학교에서 배웠던 라틴어 덕분에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각오하고 응시했던 서울대 의예과에 단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이었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시작한 서울 변두리 지역 주말 진료와 방학을 이용한 장기 진료 봉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5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 4월부터 '가난한 환자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요셉의원 원장으로서 소명을 받았으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애초부터 주님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신망애의 집

무연고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촛불이 되어주세요!

서초 나들목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우면산 자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큰 나무에 가려져 있는 작은 집이 보입니다. 무연고 고령 장애인을 24시간, 365일 돌보고 있는 '신망애의 집'입니다. 1988년,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시작된 '신망애의 집'은 긴 세월만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995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는 바람에 다시 지어야 했고, 우면산 산사태로 시설이 매몰되어 다른 곳에서 임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써왔는데 여름철 가뭄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소방서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어렵게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물 공급량이 넉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냉난방입니다. 도시가스 시설도 없어 기름보일러로 추운 겨울을 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냉난방을 전기로 충당하다 보니 엄청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안락한 집이라고 하기에는 좁고 열악하지만, 공동체 가족들은 곳곳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신망애의 집'에서 30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동철(가명, 지체 장애, 심한 장애) 님은 1992년 머리를 심하게 다쳐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반신마비로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어 임시 보호시설을 떠돌다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대부분을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지만, 강한 의지와 부단한 재활 훈련을 통해 지금은 혼자 휠체어에 오르고 샤워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오갈 데 없는 나를 보듬어 준 신망애의 집 덕분이다.'라며 자주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찡해지고는 합니다.

'신망애의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지체장애인과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 장애인으로 고혈압과 당뇨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각 개인별로 앓는 질병에 대한 병원 치료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재활 훈련을 통해 불편한 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랜 시설 생활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이나 우울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심리 정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적응 훈련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연고 장애인들의 안식처인 '신망애의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생계비와 공공요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자를 만나고,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을 연계하는 등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의 각종 물가 폭등은 시설 운영에 마치 재난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시기에 만난 '사랑의 손길'은 신망애의 집 가족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시설 장애인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기준에 맞는 재활 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이 '사랑의 촛불'이 되어 장애인들의 녹록지 않은 삶을 환히 밝혀주시길 희망합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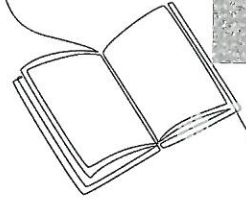
2023년 4월 1일~5월 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신망애의 집'을 위해 씁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사도들의 복음 선포 (사도 2,14~41)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에서는 24개나 되는 설교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스테파노, 야고보, 가말리엘 등등의 설교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가 베드로와 바오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총 8개, 바오로가 총 9개의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바오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복음 선포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점차 확대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담은 2,14~36 부분은 오순절 이적을 설명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구약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단락 뒤(2,37~41)에는 설교에 따른 결과를 덧붙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내용상으로는 요엘 예언서의 성취(14~21절), 예수님에 관한 케리그마¹⁾로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한 증언(22~36절), 회개 촉구(37~4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엘 예언서의 성취(요엘 3,1~5)에 관한 담화는 성령 강림 체험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며, 하느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기로 약속하신 대변화의 시작임을 전해 줍니다. 요엘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에 당신의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어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어 예언을 하고 환시를 볼 것이다.'라며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있는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순절 설교 내용의 핵심은 22~36절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에서 우리가 음미해 봐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2,23 참조)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커다란 자비와 사랑을 인간이 거부했음을 의미하며, 인간의 무자비함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시어 부활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죽인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루카는 경이로운 이 부활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사건임을 시편 16,8~11을 인용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지녔던 신앙의 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옛 계약을 완성한 교회다.' 이렇게 확신에 찬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루카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라는 선언을 통해, 세례가 단순히 물을 부어주는 예식이 아니라 성령을 전해주는 통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긴 세례를 통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을 설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케리그마(κήρυγμα): 그리스어로 '선포하다'는 뜻으로, 복음을 대중에게 선포하는 행위, 혹은 그 내용을 말한다.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분을 통한 구원과 해방이다.

저에게는 그러한 가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는 과학 이야기나 토론을 즐기는 괴짜(?)들이 많았습니다. 과학에 관련된 거라면 온갖 소재가 등장했는데, 한번은 우주의 창조와 신(神)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격한 논쟁이 될 법한 주제였지만,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자 장래 희망이 사제라는 저를 배려해서인지, 토론은 진지하지만 제법 점잖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은 뚜렷이 떠올릴 수 없지만, 역시 천주교 신자였던 어떤 친구가 토론을 마무리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좋아, 빅뱅부터 과학이 설명할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빅뱅 이전은? 그건 과학이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창조주를 믿어.”

비슷한 이야기가 이백여 년 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물리학자 라플라스 사이에 오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정반대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해 묻는 나폴레옹에게 라플라스는 답하길, “폐하, 저에게는 그러한 가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눈에 언뜻 오만해 보이는 이 말에는 실제로 과학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들은 다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또한 이 말에서 전형적인 과학자의 태도, 나아가 자연과학 자체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나는, 과학자는, 자연을 탐구할 때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양(量)으로 관측하여 수학으로 계산하고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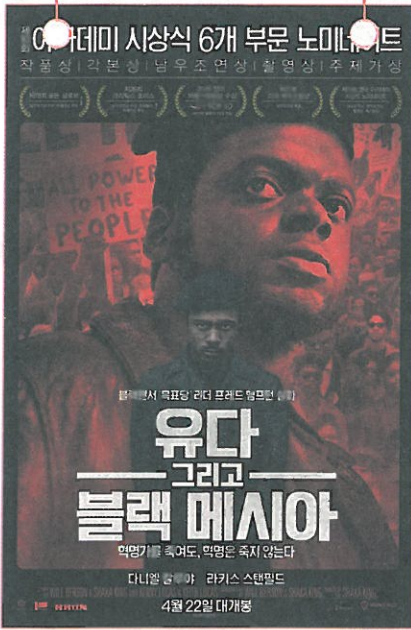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을 따른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 곧 구원, 죄, 영혼, 천사, 거룩함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느님마저 과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려운 말로 이를 ‘방법론적 자연주의’ 혹은 ‘방법론적 무신론’이라 합니다. 정말로 “신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과학 탐구를 위해 신이라는 존재에 일단 괄호를 치는 것입니다.

철학의 관점은 다릅니다. 철학은 인간과 우주 만물의 근거를 묻고,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신에 대한 물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그들이 신을 믿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신에 대해 묻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던 근대의 철학자들, 곧 데카르트, 칸트, 뉴턴도 저마다 신에 대해 말했고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물론 신에 대한 철학자들의 물음과 말(言)이 언제나 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대 자연과학이 탄생하기 전부터 있어 왔던 무신론은, 이제 자연과학을 새로운 무기 삼아 많은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주는 힘 뒤에 숨어, 그들은 적극적으로 신앙과 종교를 공격하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근거, 궁극적 존재인 신에 대한 물음을 놓아두고 떠난 자연과학을 향한 그들의 철 지난 구애는, 어디까지나 과학 탐구의 방법으로서만 ‘무신론’을 전제하는 자연과학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옵니다. 혹은 철학의 ‘반쪽’을 가지고 떠난 과학에 대한 애절한, 그러나 잘못된 짝사랑의 발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비판하고 반박한, 하지만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망령처럼 떠돌며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과학주의적 무신론에 대해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감독_사카 킹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제작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대표적인 넘버(number, 뮤지컬에 삽입되는 노래)인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I Don't Know How To Love Him)'의 가사에는, 극 중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실존적인 고뇌가 담겨있습니다. '인간 예수'와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분 짓지 않고 함께 아우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싶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민이 넘버의 가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넘버는 같은 뮤지컬 안에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괴로움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와중에도 불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곡임에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를 때의 분위기와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유다가 부르는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에는 예수를 정치적 혁명가로 여기며 따랐지만, 현실 속 예수의 의지가 자신의 신념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예수를 배반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두려움'과 자신의 배반으로 예수



영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께서 잡혀갔다는 '죄책감'이 한데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는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첨예한 논란을 일으켰던 흑인 무장 단체 '흑표당(Black Panther)'의 일리노이 지부장이었던 프레드 햄프턴(대니얼 컬루야 분)과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햄프턴보다는 햄프턴을 연방수사국(FBI)에 밀고하는 윌리엄 오닐(라키스 스탠필드 분)이라는 인물에게 더욱 집중합니다. 연방수사국 요원을 사칭하며 차량을 절도하려다가 체포된 오닐은 처벌받지 않는 대신 연방수사국 수사관 로이 미첼(제시 플레먼스 분)의 정보원으로 고용됩니다. 그리고 흑표당에 잠입해 당국에서 '블랙 메시아'라 불리며 요주의 인물이 된 햄프턴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 오닐은 흑표당 내에서 자신의 정체기가 탄로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 채 지속적으로 연방수사국의 압박을 받으며 힘겹게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 간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햄프턴의 열정적인 모습에 동화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극 중 오닐이 겪은 실존적인 갈등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바쁜 대부분의 범인(凡人)들이 겪는 갈등을 대변

해주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과 '예수님의 사형선고를 향한 유다인들의 광기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속명과도 맞물려 보입니다.



극 중 햄프턴의 열정적인 연설에 동화된 오닐의 모습을 본 연방수사국 수사관 미첼은 오닐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본심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연설에 동화되었던 것인지 묻습니다. 영화의 결말만을 놓고 본다면 오닐이 연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만, 영화 속 자막으로 전해지는 실제 오닐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놓고 본다면 그가 햄프턴의 신념과 열성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었다고 보는 것 역시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다의 뒤늦은 후회의 마음이자, 영화 속 밀고자 오닐이 품었을지 모를 햄프턴을 향한 회심의 고백이며, 동시에 사순 시기를 보내고 이제 곧 주님의 부활을 맞게 될 우리의 고해성사가 되어줍니다.

사제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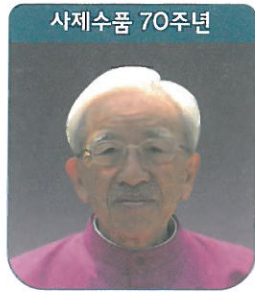
70주년 1953년 사제수품

60주년 1963년 사제수품

50주년 1973년 사제수품

축하드립니다

교구 사제단의 단일성은 물론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가 4월 6일(목)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 후 명동대성당에서 사제수품 70주년·60주년·50주년 축하행사가 있습니다.



사제수품 70주년

정의채
바오로 몬시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루카 5,11)



사제수품 60주년

최치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언제나 기도를...



사제수품 6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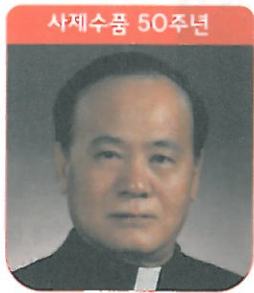
이종환
미카엘 신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사제수품 50주년

김중호
미카엘 신부



사제수품 50주년

김영환
바오로 신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
에게 선포하며.(히브 2,12)



사제수품 50주년

탁현수
아우구스티노 신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필리 1,21)



사제수품 50주년

최준용
바르나바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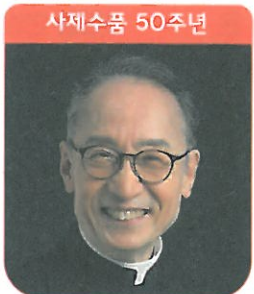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도다.
(마르 10,45)



사제수품 50주년

유병일
이나시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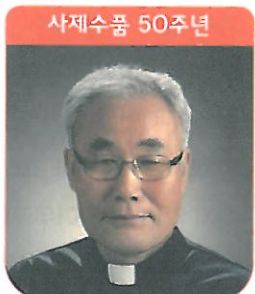
저는 아이입니다'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예레 1,7)



사제수품 50주년

백남용
바오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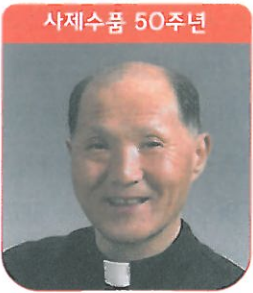
사랑은 참아줍니다.
(1코린 13,4)



사제수품 50주년

김창훈
바오로 신부

유대인들은 표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1코린 1,22-23)



사제수품 50주년

임상무
베네딕토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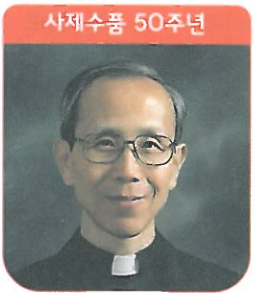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계게 이루어지소서.(루카 1,38)



사제수품 50주년

전창문
가브리엘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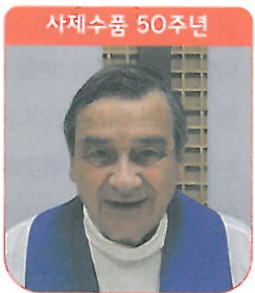
Ad Majorem Dei Gloriam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사제수품 50주년

오창선
시몬 신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이 또한 그것입니다.(필리 3,14)



사제수품 50주년

임경명
임마누엘 신부

4월 2일(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사순 시기 이웃 돕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희생하고 특별히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몫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2차 헌금으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4월 7일)에는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4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국가와 시민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펴뜨리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2년 4월 3일 양기섭 베드로 신부(77세)
- 2012년 4월 7일 이석충 사도요한 신부(89세)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구청 알림

4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4월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패밀리아채플 문: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4월 유가족 미사

때: 4월15일(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봉헌)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 02)727-2495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4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4월4일(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제: 노인사목팀 담당 사제
문: 02)727-2385, 6 노인사목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4월13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 선교봉사국) / 문: 02)727-2407, 2409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 02)727-2336

여서현 이콘전: 1전시실
안동교구 주보표지 성화전: 2전시실
이숙경 산마르코주얼리전: 3전시실
전시일정: 4월5일(수)~13일(목)

2023년 월요 성경통독(사목국)

내용: 친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 + 미사 /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 010-7586-5425(문자)

대중음악 기쁨주요목양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엄(성음악위원회)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본당, 청년, 장년 등)
때: 4월29일(토) / 접수 및 등록: 4월11일(화)~21일(금)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문: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63차 미사 4월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덕원자치수도원구 덕원본당, 고원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된분당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 02)727-2420

순교자현양위원회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일 첫째주(화) 4월4일 · 5월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안내
때: 4월15일(토), 4월16일(일), 4월25일(화)
곳: 용인 은이, 미리내, 골배마실
신청: 4월3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차량, 중식 제외)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2023년 봄)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 02)727-2047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4월13일~6월8일(목) 19시30분~21시
'청년' 헬로우 기도 2023	매일 첫째주(화) 19시30분~21시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4월18일~5월9일 (화) 19시30분~21시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4월20일~5월25일 (목) 19시30분~21시
성물 보관함 만들기(목공예)	4월18일~5월9일 (화) 19시~21시
주님과 함께 성장 열매 쓰기(번역)	4월20일~5월11일 (목) 19시30분~21시
칼럼바 성가 연주(기초반)	4월13일~5월18일 (목) 19시~21시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접수: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참조
때: 4월11일~6월8일
문: 02)727-212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특강) 가톨릭 영성을 통한 가톨릭 믿음과 신앙활동의 다양한 문화(3주)	최대환 신부
(특강)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법(4주)	윤제연 박사
(특강) 성가정의 가족들의 모든 대화는 기도이며 영성성입니다(14주)	김하늘 배우, 유지린 박사, 최현정 야나운서, 류시현 방송인
마음을 치유하는 신앙인 글쓰기 학교(5주)	허영엽 신부, 신달자 시인, 정호승 시인, 이지나 작가
마음수련을 위한 그림일기(4주)	김현정
미술치료(4주)	신혜영, 뮤지컬(8주) 이슬
바이올린(8주)	김수연, 요가(4주) 최희영
해금(8주)	정겨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4월3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문: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2박3일 대침묵 피정

주제: 나는 내 인생을 너는 내 인생을
때, 곳: 4월14일~16일, 아론의 집
지도: 문종원 신부 / 문: 010-6224-2920 강명인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주4시간, 기숙사 가능

서울평단협 사무국 직원 모집

분야: 홍보 담당 간사 1명(계약직)
4월9일(일)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 서울평단협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각 1부
홈페이지(www.clas.or.kr)-알림-공지사항 참조

가톨릭교리신학원 총무과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
서류: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이메일(ccige@catholic.or.kr) 접수
문: 02)747-8501(내선 2번)

여의도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 02)782-1259

분야: 사무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4월20일까지 방문·우편(우 0734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57 여의도동성당) 및 이메일(peterpark2017@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중곡동 등)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4월16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coinsa@seoul.catholic.kr) 접수

인준단체 알림

모임

아씨시 수녀들과 함께하는 젊은이 해외 선교체험
 때: 7월18일(화)~25일(화) 7박8일 / 선착순 10명
 곳: 인도네시아 메단공동체 / 문의: 010-5715-17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수원분원)

효순간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14일(금)~17일(월)·5월5일(금)~8일(월)·5월19일(금)~22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호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주제: 우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 만나기
 때: 4월21일(금)~23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4월13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4월13일~15일·4월17일~19일·4월22일~24일·4월26일~28일·4월30일~5월2일·5월4일~6일·10월1일~3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직장인을 위한 개인 피정 및 생태 피정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주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개인 피정	4월14일~16일, 4월21일~23일	문의:
생태영성 피정	4월15일~16일	010-6419-269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5월12일~14일, 6월3일~5일
성지순례 (추자도)	5월6일~9일,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성지순례·피정과 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애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피정	5월24일~25일, 김수환 수기경고택·한티 십자가의 길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순례	6월18일~20일(대구 17성지), 8월26일~29일(애관·부산 8곳·마산 6곳)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인간적, 영적 성숙을 돕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동행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문의: 010-6289-5013 조 미카엘라
 때: 매일 둘째주(토) 14시 / 곳: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3층

교육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8기 개강
 때: 3월27일(월) 14시·3월30일(목) 19시
 곳: 가톨릭회관 5층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서울대학교 35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4월16일~5월14일 매주(일) 13시30분~18시30분(5주간), 염리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jsyeom@hanmail.net)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반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설립 10주년 이벤트
 내용: 수강료 할인(홈페이지 참조)
 회비: 일반 2만5천원, 단과 1만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2)439-3811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 회비: 10만원
 내용: 인문독서(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4월17일부터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성마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곳: 성마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미사 있음

매주(목)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외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이른 수강생 모집(입문반)
 대상: 이콘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분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이콘 박사)
 때, 곳: 4월24일~6월26일 매주(월) 10시~13시(10회), 성마로수도회 본원 바오로센터(주최)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미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4월3일(월) 14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안내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나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에너 프로그램: 매일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제주 '술길 단상' 북콘서트(성마로말수도회)
 강우일 주교에게 듣는 사랑, 생명, 평화, 정의, 진리
 때, 곳: 4월29일(토) 13시, 제주 연동성당 / 회비 없음
 문의(접수): 010-7286-7724 (문자) / 사전 접수 필수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학교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증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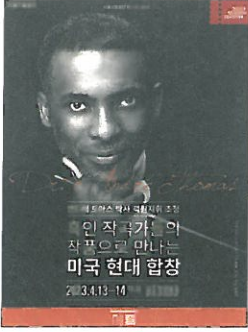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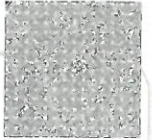
유관단체 알림

다슬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아트살롱 '함께 그려요' 드로잉 모임(성인반): 수시 모집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 신부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4월15일(토) 14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322-1830
성심수녀회	4월15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9353-1773
한국외방선교회	5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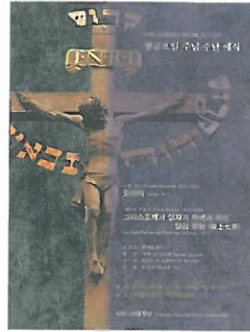


공연

안드레 토마스 박사 객원 지휘 초청
흑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만나는 미국 현대 합창

입장권: 전석 3만원 / 문의: 02)399-1777 서울시합창단,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1부로 2명 20% 할인

미국 최고의 합창 지휘자이자 작곡가 안드레 토마스 박사의 지휘로 합창 음악에 녹아든 미국의 역사와 음악을 재조명한다. <흑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만나는 미국 현대 합창>이 4월 13일(목)~14일(금) 19시 30분 세종체임버홀에서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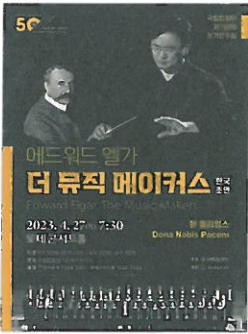


음악회

제83회 아퀴나스합창단 연주 · 수난묵상음악회

문의: 010-9369-8739 아퀴나스합창단

제83회 아퀴나스합창단 연주·수난묵상음악회가 4월 7일(성금요일) 20시, 서원동성당에서 있다. 이 음악회는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에 포함된 형태로 진행되며, 연주곡에는 구노의 '갈리아(=애가)'와 프랑크의 '가상철언', 당일 전례 중에 부르도록 되어있는 노래도 포함되어 있다.



공연

국립합창단 제193회 정기연주회
에드워드 엘가 더 뮤직 메이커스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1544-7744 롯데콘서트홀,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1부로 2명 20% 할인

에드워드 엘가 <더 뮤직 메이커스>가 오는 4월 27일(목) 19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국 초연작으로 선보이는 영국의 세계적인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더 뮤직 메이커스'와 본 윌리엄스의 'Dona Nobis Pacem(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통해 20세기 영국 합창 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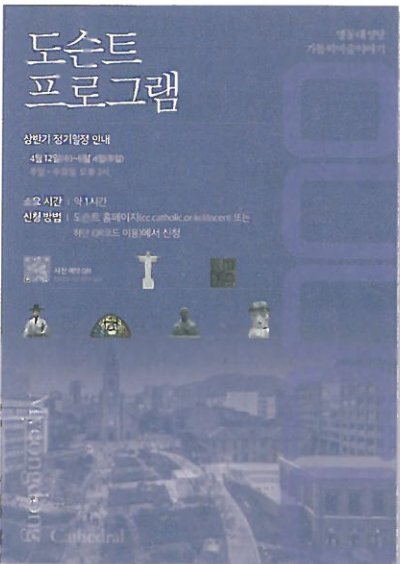


공모전

2023년 모여라 가톨릭 상반기 영상 공모전

때: 4월 3일~5월 31일
 문의: 031)8019-5403(https://mocatholic.or.kr)

'똑똑똑! 여기가 성지인가요?' 2023년 모여라 가톨릭 상반기 영상 공모전이 4월 3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진행된다. 성지에서 찾은 나만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하면 된다. 본당·단체·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명동대성당 가톨릭미술이야기
도슨트 프로그램



사전 예약 큐알(QR) 인터넷 사전 예약 필수

상반기 정기 일정 안내 : 4월 12일~6월 4일 (주일·수요일) 오후 2시
 소요 시간 : 약 1시간 | 문의 : 02)751-4100 홍보위원회
 신청 방법 : 도슨트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또는 상단 우측 큐알코드 이용)에서 신청

명동대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으로 한국에 천주교 신앙이 전해진 이래로 그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가톨릭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전례, 성미술,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복음적·예술적 메시지를 들으며 명동대성당을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2274(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전신자 부활맞이 대청소 및 국수잔치

일시 : 4월 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청소 구역	구역
대성전 1층	4, 5
대성전 2층, 제의방쪽 대성전창문, 사무실 뒤 계단	3
지하소성전 및 통로	1
지하식당, 이레벤드실, 지하주차장	10
교육관 1층	8
교육관 2층	연남,기타
교육관 3층	7
육각계단	2
주차장 및 화단 주변	6
화장실 천장, 교육관 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9

◎ 오늘은 사순절 이웃돕기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성삼일 · 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4월 6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8시 - 주님만찬저녁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4월 7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오후 8시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8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
4월 9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주일학교), 오후 6시 * 오전 7시 미사 없음

* 성삼일(4월 6일~8일)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4월 2일(주일) 오후 6시 미사 후

◎ 연령회 미사

일시 : 4월 4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선종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청년 부활 골든벨

일시 : 4월 9일(주일) 오후 6시 미사 후
장소 : 지하식당
대상 : 청년 누구나
문의 : 청년회장 최정은 비아 (010-2550-2375)

◎ 연성회(70대) 정기모임

일시 : 4월 13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 성서 백주간 그룹원 모집

성경을 3년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다.
시작 : 4월 11일(화) 오후 7시 미사 후
문의 : 봉사자 (010-2734-0853)

◎ 문화학교 선생님 모집

과목 : 미술, 캘리그래피
문의 : 플로라 (010-5471-2416)

◎ 초등부 주일학교 보조 반주자 모집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의 반주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습및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문의 : 전례단장 (010-9526-3217)

◎ 군입대 자녀 부활선물은 4월 2일(주일) 오늘 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3. 2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49	683 (33%)	639 (30.9%)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3월 20일~26일)

이형재일십만원 익명이십만원
이영자오만원 김경만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사순 제5주일)

교 무 금 13,456,000원
주일헌금 6,184,500원

입당	119	봉헌	216, 210, 340	성체	156, 162, 151	파견	115
----	-----	----	---------------	----	---------------	----	-----

